

정선아 “복귀 첫 공연에 펍펍...뜨거운 반응 20년 보상받는 기분”

**임신·출산 후 1년6개월만 복귀...뮤지컬 ‘이프덴’
“뮤지컬은 내 인생... ‘이프덴’으로 인생 2막 열어”**

“이 작품은 놓칠 수 없었어요. 정선아 인생에 딱 맞는 작품이었죠. 첫 공연이 끝나자마자 펍펍 울었어요.”

뮤지컬 ‘이프덴’으로 무대에 복귀한 배우 정선아는 지난해 12월 첫 공연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1년 6개월 만의 무대였다. 그때 그 순간의 박찬 감정과 감동이 다시 밀려온 듯, 미소를 띠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관객들 박수를 받으니 참 좋다.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다”며 “오랜만의 복귀라 사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뜨겁게 반응해줬다. 20년간 꾸준히 뮤지컬 한길을 걸어온 데 대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무대를 떠나있었던 만큼 관객들이 자신을 잊어버릴까 걱정도 됐다. 임신 기간엔 22kg나 몸무게가 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했다. 무대에 대한 갈증은 커졌고 출산 후 곧장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보컬 레슨을 받으며, 체력을 위해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혹독한 다이어트도 했다.

“관객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무대에 섰을 때 이전만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기를 낳더니 ‘목소리가 달라졌다’, ‘노래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부터 됐죠. 그래서 ‘정선아 변함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위안을 받았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이프덴’으로 한 발짝 성장한 거죠. 이 복귀 무대를,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이프덴’은 이혼 후 10년 만에 뉴욕에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선택에 따라 각각 ‘리즈’와 ‘베스’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린다. 순간의 선택에 따라 결혼에 육아까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리즈’와 뉴욕 도시계획부서에서 일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베스’의 삶이 교차된다. 이번이 한국 초연이다.

여러 작품의 러브콜 속에 ‘이프덴’을 택한 건 또다른 도전이었다. 전 시즌에 출연한 뮤지컬 ‘위키드’의 사랑스러운 ‘글린다’와 ‘아이다’의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 등 대극장에서 화려한 캐릭터를 주로 맡아온 정선아였다.

“예전부터 연기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극이나 소극장 무대로 관객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한편에 있었죠. 하지만 화려하고 큰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땀 흘리는 게 고음을 원하는 관객들의 기대와 다를까봐 선택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용기가 생겼어요. 이전 안 가본 길을 개척해보고 싶었고 운 좋게 이 작품을 만났죠.”

용기를 냈지만 빠른 극 전개와 대사량이 만만치는 않았다. 따로 연습실을 잡아서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할 정도였다. 정선아는 “매일매일 웃고 울며 전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말했다.

“리즈와 베스처럼 계속 고민했어요.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번 왔다갔다 했죠. 좋은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괴로워했어요. 뮤지컬을 하면서 대사가 이렇게 많은 적도 없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졌는지, 잘 외워지지 않아서 정말 고생했고 많이 울었죠.”

결혼과 출산, 육아를 실제 경험했기에 작품의 내용은 더 와닿았다. 정선아 개인에 대한 칭찬보다 작품에 공감하며 위로 받았다는 관객들의 반응이 새로워 더 신난다고 했다. “결혼이나 출산 전에 이 작품을 만났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극중 아이에 대한 신에서도 저절로 울컥하는 감정이 생겨요. 연기를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지난 2002년 뮤지컬 ‘웬트’로 데뷔한 정선아는 지난해 12월 20주년을 맞았다. ‘드림 걸즈’, ‘지킬 앤 하이드’, ‘에비타’, ‘드라큘라’, ‘킹키부츠’, ‘데스노트’, ‘안나 카레니나’, ‘보디가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무대를 넘어 영역을 확장하는 배우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뮤지컬이 더 좋단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호흡할 때면 “뮤지컬을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이 늘 든다고 했다.

정선아 개인의 삶으로도, 뮤지컬 배우로도 인생 2막의 첫 작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극중 엘리자베스처럼 그도 최근 몇 년간 결혼부터 출산까지 삶의 기로 속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비혼주의자였고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다. 뮤지컬 배우로 일을 우선으로 달려왔던 저의 모습도 좋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금도 너무 좋다. 엄마이자 여배우로서 깊어지고 풍족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인생 1막은 19살에 혜성같이 등장한 고등학교로 시작했죠. 제 어린 시절에 뮤지



컬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뮤지컬은 제 인생이죠. 이전 결혼해 아기가 된 정선아로, 또 뮤지컬 배우로서 인생 2막을 열고 있

죠. 그 첫 단추를 ‘이프덴’으로 잘 끼었다고 생각해요. 두고두고 지금을 생각하며 ‘이프덴’ 앞이기를 할 것 같아요.”

‘더 글로리’ 이무생 “이런 반응 예상 못해”

사이코 살인마 강영천 역 맡아 ‘강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을 맡아 강렬한 인기를 선보여 호평받은 배우 이무생이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무생은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이코패스에 관한 서적을 참고해 캐릭터에 접근하려 했다”며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순간에 이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표현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무생은 지난 12월30일 넷플릭스에서 공

개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 ‘강영천’ 역으로 출연했다.

강영천은 주인공 ‘문동은’의 조력자인 ‘주여정’(이도현)과 연결된 인물이다. 과거 강영천은 주여정의 아버지를 살해해 교도소에 갔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주여정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그를 괴롭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여정의 어머니 ‘박상임’(김정영)이 강영천을 찾아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반성했다고 하지만 이내 “심심해서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무생은 이 장면을 촬영한 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이 씬을 찍을 때만큼은 나 자신이 아닌 강영천으로 살아야 이 드라마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다시 한 번 ‘대본에 답이 있다’는 말에 공감하게 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님께 감사하며 또 편하게 연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감독님과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아동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재개 “진심으로 사과”



‘결혼지옥’이 7세 의붓딸 성추행 논란 후 3주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MBC TV 예능물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제작진은 9일 방송 시작 전 사과문을 내보냈

MBC ‘결혼지옥’ 3주만에 다시 방송 시작

다. “지난해 12월19일 방송한 고스톱 부부 편에서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송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면서도 “해당 가정의 생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 후 전문가 분석을 통해 관계 회복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시 상황에서 우려될 만한 모든 지점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작진은 모든 시청자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과 탤런트 소유진, 김용수, 래퍼 하하 등 MC들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프닝 멘트를 외치며 새 회차 시작을 알렸다. “우리 부부에게도 순정이 있었다. 순정은 잃고 손절남 남은 부부들이 매일 밤 신혼이 되는 주문. 오은영 리포트”라고 했다.

고스톱 부부 편에서 남편은 7세 의붓딸을 겨냥한 채 옆구리와 가슴 등을 간지럽히고, 주사 놓기 놀이라며 엉덩이를 찔렀다.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딸은 “나 달라. 삼촌 싫어”라며 거부했다. 방송 후 MBC 시청자 소통센터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제작진은 VOD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했고, 사흘 만인 지난달 22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다음 날 오은영은 “방송분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 내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인하는 사람처럼 비추진 데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따끔한 지적·충고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다. 향후 내 의견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후 내부 정비를 위해 2주 간 결방했다.

갓 더 비트, 수록곡 ‘말라’...첫 미니앨범 발매

소녀시대 태연·레드벨벳 웬디·에스파 윈터 티저 사진 공개

그룹 ‘갓 더 비트(GOT the beat)’가 첫 미니앨범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한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갓 더 비트는 이날 0시 SNS를 통해 멤버 소녀시대 태연, 레드벨벳 웬디, 에스파 윈터의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카리스마 가득한 비주얼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갓디스 레벨(Goddess Level)’은 묵직한 트랩 비트와 리드미컬한 브라스 사운드와 돋보이는 파워풀한 댄스 곡으로, 진정한 신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기에 자기 확신을 갖자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다. 또 다른 수록곡 ‘말라(MALA)’는 808 베이스

위에 피리 사운드가 더해져 묘한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팝 곡으로, 가사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고민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풀한 태도를 나타냈다.

갓 더 비트의 첫 미니앨범 ‘스탬프 온 잇(Stamp On It)’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는 16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송가인·김호중, 대학로 연극 도전...살벌한 사투리 연기 ‘눈길’

TV조선 ‘복덩이 들고’ 방송

트롯트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대학로 연극에 도전장을 내민다.

11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TV조선 ‘복덩이 들고’에서는 연극배우인 사연자를 만나러 간 곳에서 갑작스럽게 연극을 하게 된 송가인, 김호중, 개그맨 허경환의 하루가 그려진다. 갑작스럽게 도전한 연극이었지만, 세 사람은 대학로 소극장 공연 기획부터 홍보, 선곡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한다. 송가인, 김호중, 허경환은 각자 다른 사투리 연기를 선보인다. 특히 송가인은 전라도 사투리를 가미한 살벌한 대사로 베테랑 연극 배우까지 무대 위에서 떨게 만든다.

김호중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어 참 좋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로 무명 배우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이어 양희은의 ‘삼국수’를 열창해 감동을 선사한다.

허경환은 두 사람의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 어줄 게스트 섭외에 나선다. 발 빠른 허경환 덕



분에 트롯 바버, 실력과 특별 손님이 등장한다

고 전처럼 호기심을 모은다.